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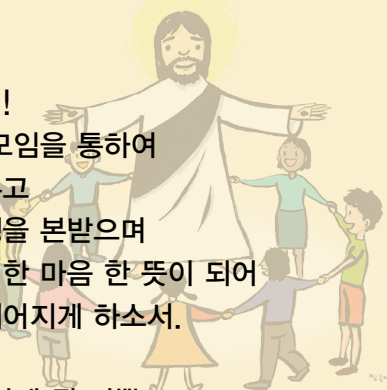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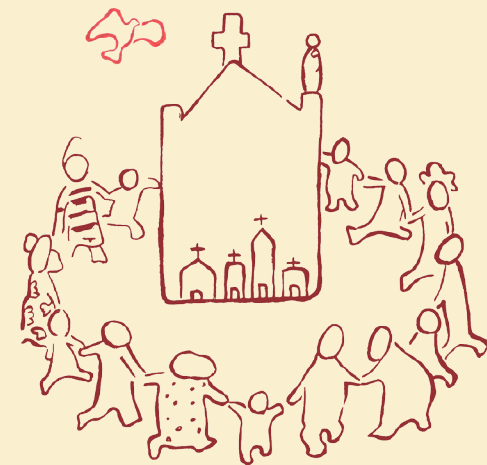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주님세례축일(1월 12일) 죄인과 함께 (마태 3,13-17)



예수의 세례, 우리의 세례

-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마태 3,16)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의 물이 세상을 성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51장 “주여 임하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3 그대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15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16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 3,15)

우리 각자의 세례를 통해 이루어야 할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17)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모습이겠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느님의 아들이 굳이 그 죄인들 속에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보잘 것 없는 인간의 한낱 생각으로는 왠지 모를 거부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는 무지한 인간의 생각일 뿐, 하느님은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아닐는지요. 의인과 죄인을 구

분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먼저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바라보고 품으신 것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로 대우해 주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반·구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밀쳐내고, 판단하는 형제자매는 없습니까? 죄인도 끌어안으시고 그 속에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보기 싫고 미운 이를 밀쳐내고 싶은 유혹에서 잠시나마 해방되어 보기를 기도해 봅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51장 “주여 임하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2주일(1월 19일) “누구를 찾느냐?” (요한 1,29-34)



세상 안에 머무심

—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요한 1,32)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심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53장 “오소서 주 예수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9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



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나는 보았다!”(요한 1,34)

지금 나의 삶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의 것들입니까?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요한 1,34)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물건도, 새로운 영상도,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안에서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일기도 하고, 때론 버거움에 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도 궁금함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겠지만, 한편으로 걱정과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그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두려움 섞인 행위에 예수님은 ‘무엇을 찾느냐?’라며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대단한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찾아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레나에게 던지신 물음이 제자들이 찾아야 할 궁극적인 물음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지금 신앙의 삶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를 찾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봅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80장 “주님의 작은 그릇”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소한 행복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합천본당 3구역 1반 반장 안순이 아우구스타-

항강이 유유히 흐르고 자연 경관이 수려한 합천본당 3구역 1반은 읍의 일부분과 대병면(합천댐 부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반은 본당 청소와 성지순례, 주일 전례 담당과 본당의 날 행사에 오순도순 잘 챙기고 협동하는 최고의 반입니다. 자랑을 하다 보니 구역 운영이 어려웠던 때가 생각납니다. 직장가 가정, 확신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소공동체 모임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 전화를 돌리고 쉬는 교우를 방문하고 달린 현관문에 엽서를 꽃으며 기도와 희생으로 반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덕분에 흩어졌던 반원들이 모이고 구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본당에도 반나절도 채 안 되는 주일미사를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는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반모임을 통해 더욱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반모임 안에서 느끼게 된 삶의 의미와 재미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이어졌고, 주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여겨 받으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나누어주십니다.

본당행사 때는 서로 께은일을 맡아 하면서도 마치 행사의 주인공처럼 모두들 밝은 표정입니다. 부활대축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계란을 만들어 주고받고, 성령강림대축일에는 성령칠은 카드를 만들어 나눕니다. 특히 본당 청소 날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넓은 성당을 청소하고, 시간이 맞지 않는 분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 자기 몫을 다하고

돌아갑니다. 본당의 날 식사 때에는 반원들이 반찬 하나씩을 만들어 와 펼쳐놓는데 고급 뷔페보다 푸짐하고 풍성합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 구역 모임이 본당 내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구역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강요와 의무라는 인식이 없어지고 점차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친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구역의 귀감이 되고 또 본당의 분위기까지 좋아지는 데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감동과 친밀감은 삶의 표정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성당 밖에서도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의 목표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3구역 1반은 자녀 남편 모두 함께 하는 협동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 식구들이 영성적인 삶, 사도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평신도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본당 모든 구역마다 믿음과 나눔의 소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행복과 희망이 꽃피는 3구역 1반이 될 것입니다.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선교하는 소공동체 - 왜 선교해야 하는가?

소공동체와 선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선교는 일부 열심한 사람의 몫이라고 여겨 선교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은 본당 전체 신자 중에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선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하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이요 제일가는 사명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복음 선포를 위해서이다(선교교령 6항; 교회의 선교 사명 14항; 마테 10,16; 루가 10,3; 요한 17,18; 사도 22,21).

선교는 하느님 백성 전 공동체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아 당신의 제자가 된 우리들을 세상에 파견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들 위에 계시며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파견하시고 당신 힘으로 모든 사도직 활동을 지원해 주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마르 28,16-20; 루가 24,46-49; 사도 1,8-9; 에페 3,8).

-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마산교구 평신도 신앙대학 제27기 모집

마산교구에서는 가톨릭 신학과 철학, 영성을 바탕으로 평신도 신앙인의 자질 함양과 세상의 복음화 및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목표로 ‘신앙대학’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신앙대학 제27기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기 간 : 2년 과정(1, 8월 방학) 매월 첫(토) 13:30~(주일)16:00(1박2일)
- 과 정 : 2020년도-사회교리(박창균 신부), 교부학(최원오 교수), 그리스도론(강철현 신부), 신약성경(정연우 신부), 교회법(김정훈(도) 신부), 성사와 전례(김정우 신부)
2021년도-영성신학, 윤리신학, 구약성경, 교회론, 성령론·마리아론, 철학
- 지원자격 : 영세한지 만2년 이상된 평신도로 본당 주임 사제의 추천을 받은 자(만65세 이하)
- 졸업특혜 : 신앙대학 졸업장, 교리교사 자격증 발급
- 개 강 일 : 2020년 2월 1일(토) 오후 1시(O/T 및 입학미사)
- 등 록 비 : 교육관 숙박비 선택(2인실: 54만원, 4인실: 44만원)
- 교육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 지원마감 :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 지원방법 :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의 입학 양식을 작성하여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 주 소 : (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 연 락 처 : 사목국 055)249-7021~3